

# ‘공룡시대 살아남기’ 신개념 게임 ‘듀랑고’ 넥슨의 도전

오는 25일 세계시장 정식 출시  
가상 사회 조성하는 샌드박스형  
탐험 위주 무과금 플레이 가능  
실제 동물소리 담아 새로운 시도



정상원 넥슨 부사장이 '듀랑고' 게임 출시 일정을 알리고 있다.

/넥슨

‘현대인이 공룡 시대에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넥슨이 이처럼 참신한 콘셉트의 신작 ‘야생의 땅: 듀랑고’로 새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정상원 넥슨 부사장은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정식 출시하는 듀랑고는 경쟁 자체보다는 이용자 간의 협동과 탐험이 게임을 만들어 간다”며 “게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모바일 게임 개발 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던질 수도 있다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듀랑고는 넥슨이 올해 처음 내놓은 자체 지식재산권(IP) 게임이다. 넥슨의 자체 개발 타이틀인 ‘마비노기’ 등을 개발해 회사 대표 개발자로 부상한 이은석 디렉터가 이끄는 왓스튜디오가 최소 10년 이

상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5년 이상 공을 들였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5일이다. 아시아지역을 벗어난 북미 등 글로벌 시장도 공략한다.

이은석 넥슨코리아 왓스튜디오 프로듀서는 “마비노기 영웅전 개발 이후 신작을 고민했고 아무도 만들지 않은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세상에 나온 N개의 게임에 하나를 더 하기보다는 0개의 게임을 1개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듀랑고는 기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MMORPG 등과는 맥을 달리 한다. 장비나 성장이 아니라 협동과 탐험을 위주로 삼는다. 이용자들이 건축가, 요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 요리, 농사 등 생활 콘텐츠로 환경을 개척하고 가상의 사회를 조성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다. 전투가 필수 요소가 아니며 최근 총사

움 등이 주가 되는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신선함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질학·고생물학 박사과정 출신의 게임 디자이너가 투입됐다.

이용자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 지나친 과금을 부과하게 하는 게임과 달리 듀랑고는 협력과 탐험을 위주로 해 무과금자들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토록 했다. 노정환 본부장은 “게임에 과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지독한 경쟁 때문이지만 듀랑고는 편의성이나 감성적 만족도 부분을 과금토록 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소리를 입히기 위해 실제 동물들의 소리를 재료로 삼고 폴리 녹음도 시도했다. 색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TV 광고도 다르다. 기존 게임들의 경우 유명 연예인 모델이 광고를 했다면, 듀랑고는 게임에서 이용자가 겪는 독특한 방향에 주력해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만들었다.

넥슨은 듀랑고를 오래 가는 게임으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석 프로듀서는 “게임의 장기적인 수명을 해치는 비즈니스 모델은 원하지 않는

다”며 “비즈니스 모델은 편의성, 시간단축, 외형성장 위주로 돼 있다. 성능보다는 감성적인 만족감에 과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발팀은 듀랑고 내 세계가 지속가능토록 설계했다.

최종 목표는 전세계의 이용자가 장벽이 없는 글로벌 단일 서버를 만드는 것이다. 노정환 넥슨 본부장은 “듀랑고로 인해 넥슨 브랜드가 북미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 알려져 모바일게임도 잘 만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넥슨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해외 베타 테스트도 진행했다.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 152개국 유저들이 참여했다.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280만건에 달해 글로벌 시장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넥슨 측은 말했다.

듀랑고는 오는 25일 국내 안드로이드 OS 및 iOS를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했으며 이날 기준 사전예약자가 160만명을 넘어 올해 기대작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나민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국지엠 노사, 8개월만에 임금협상 마무리 “4차혁명 선도... 블록체인 경쟁 확보”

조합원 69.2% 찬성으로 교섭  
기본급 5만원 인상 등 합의

로써 올해 임금 교섭이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5월 23일 첫 상견례를 마친 이후 2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25차 교섭을 통해 ▲기본급 5만원 인상 ▲격려금 600만원(지급시기: 2018년 2월 14일) ▲성과급 450만원(지급시기: 2018년 4월 6일)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 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신속히 개시하고 조속한 협상과정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2017년은 한국지엠에게 도전 과제가 많았던 한 해였고, 이러한 상황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민 기자 ysw@

김병철 현대페이 대표 신년사



반H/W 제작·출시 ▲레그 테크(Reg Tech) 솔루션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IoT 기기가 복잡하게 연결되는 미래사회에서 블록체인

김병철 현대페이 대표(사진)가 Hda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다진 초석을 바탕으로 올해는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에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진출하는 사례를 들며 “현대페이 역시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Hdac 플랫폼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페이는 올해 중장기 목표를 ‘Hdac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 상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 ▲블록체인 IoT 플랫폼 구축·서비스 ▲스마트 홈·스마트 팩토리용 IoT 블록체인 융합 솔루션 공급 ▲블록체인 기술 기

를 통해 사람과 기기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실현한다는 ‘Beyond the Human Pay(비욘드 더 휴먼 페이)’를 향상 되새겨야 한다”며 “항상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할 때 진정한 고객 가치 중심의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 혁명에서 현대페이가 선구자이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임직원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 달라진 이통3사 멤버십 혜택... VIP·VVIP에 집중?

새해를 맞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이 달라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멤버십 혜택이 일반 등급 대신 VIP·VVIP 등에 집중돼 고객 차별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통통신 3사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멤버십 정책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지난해 선보인 선택형 더블혜택 멤버십 ‘내맘대로 플러스’의 주요 제휴처 4곳에 대해 연간 할인 가능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선보였다.

새해를 맞아 리뉴얼된 ‘2018 내맘대로 플러스’는 메가박스, 아웃백, 롯데리아, 공차 등 주요 제휴처 4곳의 혜택을 매일 이용할 수 있도록 연 12회까지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연 6회)보다 2배 늘린 점이 특징이다.

2018 내맘대로 플러스를 신청한 T멤버십 VIP 등급 고객은 ‘VIP 전용 제휴처’ 3곳 중 1곳과 ‘VIP·골드 공통 제휴처’ 9곳 중 1곳 등 총 2곳을 골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드 등급 고객은 ‘VIP·골드 공통 제휴처’ 중 1곳을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좋아하는 고객은 아웃백을 선택해 30% 할인을 받고, 할인 받은 금액만큼 T멤버십 두툼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T멤버십 두툼 포인트는 할인 받은 금



모델들이 SK텔레콤의 선택형 더블혜택 멤버십 ‘내맘대로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액만큼 적립되며 11번가, 기프티콘몰, 레진코믹스, 에스24, 신라인터넷면세점 등 10개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도 올해 들어 신규 멤버십 혜택으로 글로벌 해외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 신세계 면세점, 디착한가게 등 여행과 쇼핑 혜택과 ‘올레tv모바일’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20% 할인 혜택 등을 추가했다.

다만, 줄어드는 혜택이 신설 혜택보다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U클라우드 멤버십’ 혜택, 해외 무료티켓, 현대 H몰 VIP조이스 1만원 할인쿠폰, ‘더블할인멤버십’ 혜택이 종료됐고, 이마트 제휴 혜택도 5000원 할인에서 2000원 할인으로 줄었다.

LG유플러스는 GS fresh에 5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되는 멤버십 혜택을

오픈했지만 멤버십 전체 등급에 제공하던 ‘나만의 룩’ 서비스를 VVIP와 VIP 등급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나만의 룩은 쇼핑, 영화, 푸드, 교통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무료 영화 티켓 횟수도 절반으로 줄고 차감 포인트도 늘어났다. 가맹 편의점인 GS25 이용 횟수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VVIP·VIP 등급에 멤버십 혜택을 집중시켜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멤버십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 혜택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객이 선호하는 제휴사 추가 발굴해 더 나은 혜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 美 MIT서 ‘창의학습 노하우’ 전수받는다

스마일게이트, 전략적 MOU 체결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미국 MIT와 국내 창의학습 환경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희망스튜디오와 MIT는 ▲스크래치 기반의 국내 어린이 청소년 맞춤형 창의 프로그램 개발 ▲희망스튜디오 창의공간 ‘퓨처 랩(FUTURE LAB)’을 활용한 스크래치 데이 워크숍 개최 ▲스크래치를 개발한 미첼 레스너 MIT교수의 퓨처 랩 명예 대사 위촉 및 창의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은 저서 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퓨처 랩에서 MIT국제과학기술협회(MISTI)가 과학, 기술, 공학, 기업이 정신 등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게임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GTL(글로벌 티칭 랩스)’도 정기 개최할

이와 관련 희망스튜디오는 이달 총 2회 GTL 프로그램을 연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창의 프로그램 SEED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MIT 학생들과 함께 로봇을 만들며 공학의 개념을 공유한다. 15~19일은 지구촌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달걀 떨어뜨리기를 통한 물리의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지난해 5월 MIT와 어린이 청소년 창의 발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이래, 어린이 청소년의 창의학습 환경 조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다”며 “이번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최고 대학인 MIT의 창의학습 노하우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프로그램과 접목해 미래세대 위한 창의환경 조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